농업기술 경쟁력 높여 ‘농어촌수도 해남’ 도약

군, 친환경 생산 기반 구축·청년농 육성·가공 연구개발
현장 중심 농정 시스템 확립…군민 체감효과 향상 주력

해남군이 농업기술센터의 핵심 사업을 대폭 확대·개편해 ‘농어촌수도 해남’의 비전을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로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농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부터 가공, 안전, 연구개발까지 농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미생물 공급시스템을 개선한다.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BV균 등 일반균종에 더해 병해충 예방 기능성 미생물 생산을 확대한다. 이에따라 밀 붉은곰팡이병 예방 미생물, 채소·과수 선충 방제 미생물, 나방류 방제 BT 등을 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또 기존 2ℓ 소포장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용기를 지참하도록 변경해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현장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기존 마늘·양파 중심에서 배추, 감자까지 대상 작물을 확대해 주산지 공동경영체 조직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등 협의체를 대상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필요한 농업기계를 구입, 기종별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장기임대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는 18~49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 노지 스마트기술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밭작물을 0.5㏊이상 재배하는 청년농 대상으로, 5개소 내외를 공모 선정해 총 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모임체 육성사업도 나설 계획으로, 현재 식량(58명), 노지채소(52명), 시설채소(31명), 축산(34명), 과수(18명), 가공·유통(35명) 등 6개 분야 228명이 활동 중이다. 현장컨설팅, 전문가 초빙 강의,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해 청년농 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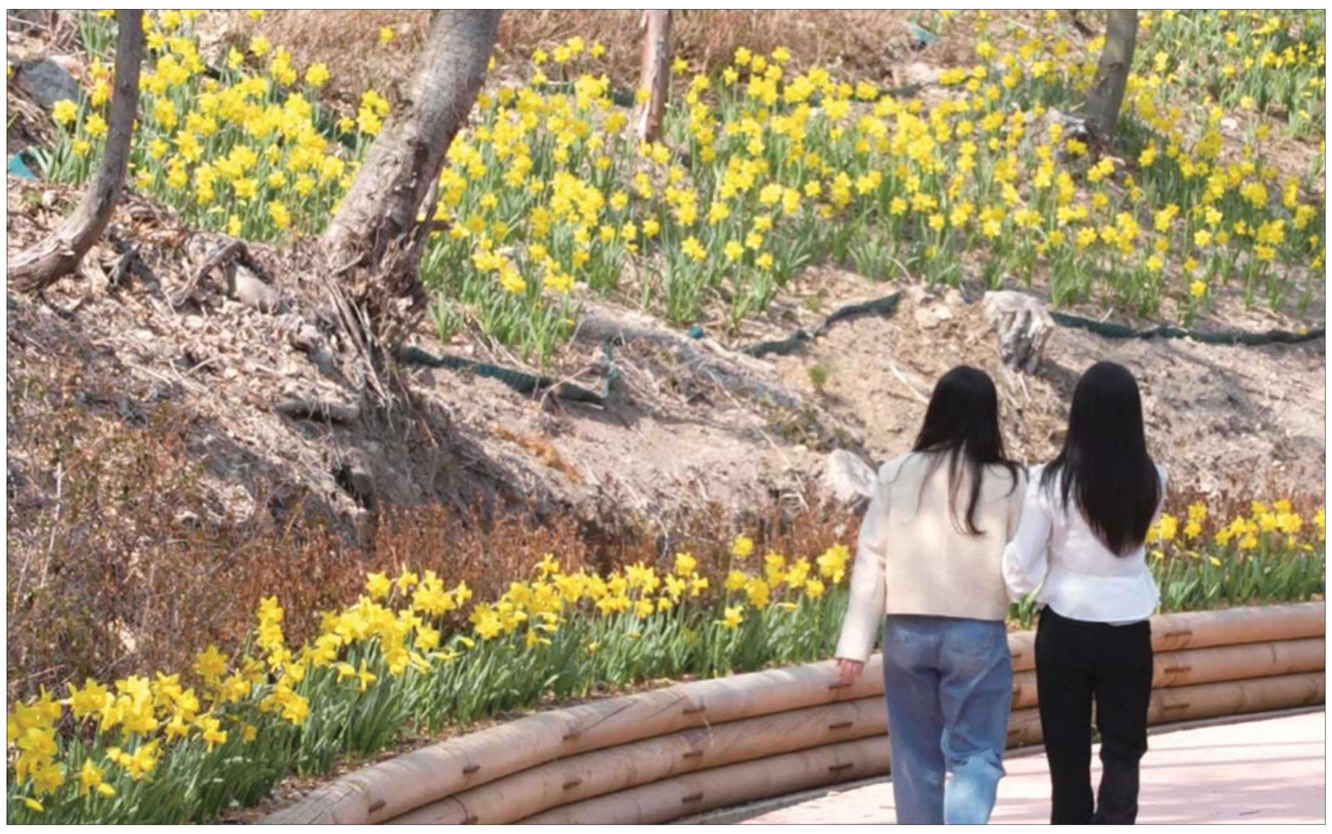
2026년에는 지난해 개발된 가공상품에 대한 기술이전과 제조공정 표준화를 추진한다.

장립종쌀 활용 레피시 4종, 반가공 고구마 상품 4종, 기능성 표시 해남 배추김치 3종으로, 해남 배추 소비 확대를 위해 경상도·경기도식 양념 레시피를 새롭게 개발하고, 관내 업체에 기술이전을 실시해 판로 확보에 나선다.

총 3억5500만원을 투입해 수질·토양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종합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우량 종순 생산, 특허미생물 방제효과 검증, 세척·선별 자동화, 수확 기계화 실증, 기후변화 대응 표준 재배기술 확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친환경 생산 확대, 기계화 기반 확충, 가공·연구개발 강화, 청년농 육성까지 농업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농정으로 ‘농어촌수도 해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에 있는 산림욕장 생태탐방로 부지에 수선화와 애기동백이 만개해 봄을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진도군

진도 산림욕장 내 생태탐방로 ‘봄꽃 만개’

군, 지난해 34종 39만여본 추가 식재…사계절 꽃 구경 가능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에 있는 산림욕장 생태탐방로 부지에 수선화와 애기동백이 만개하며 봄을 알리고 있다.

산림욕장에는 지난 2024년 수국 2만 본을 식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4종의 꽃 39만3770본을 식재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봄에는 수사해당화, 꽃복숭아, 수선화 등 총 5만2000본이 개화를 시작하며 영산홍, 자산홍 등 철쭉꽃이 봄을 알린다.

여름에는 무궁화, 부용, 원추리, 수국 2만 본이 산 전체에 개화하고, 가을에는 은목서, 나무수국, 꽃무릇 60만 본이 가을을 장식하며, 겨울에는 화살나무, 털머위가 개화한다.

또 산림욕장 입구에 태추단감 등 8종, 50주의 과수원을 조성해 군민 누구나 수확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단풍나무숲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인 참나무 2000본에 표고종균을 접종해 올해 가을부터는 표고버섯을 수확할 수 있도록 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진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사계절 내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완도, 도서 지역 가뭄 대응 총력

해수 담수화 신설·운반 급수·지하수 저류 댐 가동 등

완도군은 최근 겨울철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노화읍 넙도 등 도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가뭄 ‘관심’ 단계에 돌입한 노화읍 넙도의 경우 해수 담수화 신설과 동시에 저수율을 유지하기 위해 운반 급수를 시작해 취수량을 일부 확보하며 가뭄 단계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지난달 21일 기준 보길면의 부황제 저수율이 40% 미만인 ‘관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저수율을 유지하고자 지하 저류 댐 가동과 운반 급수를 병행해 용수를 공급했다.

운반 급수는 부황제 물 사용량과 저류 댐 송수량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행 중이며, 호우 예보에 따라 운영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보길도 지하수 저류 댐은 9만3020㎥(일 평균 1163㎥)의 물을 부황제에 공급 중이며, 송수관로 개량과 강수에 따라 일 최대 3900㎥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 물은 보길도와 노화도 주민 8000여명이 37일간(일 2500㎥ 사용)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보길도 지하수 저류 댐은 지난 2023년도에 설치됐으며, 지표면 아래에 차수 벽을 설치해 지하 수위를 상승시켜 가뭄에도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소안도와 청산도에 추가로 저류 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소안도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리적 한계로 안정적 수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 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영암, 청년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취업자 주거비 지원

영암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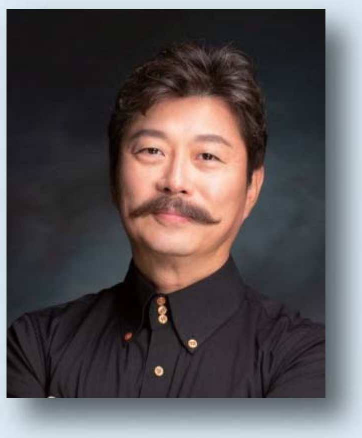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061-470-2553)으로 하면 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2026년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개강식 축하 콘서트

일 자 |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6시
장 소 |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5층 대연회장 (구 라마다상무호텔)
일 정 | 오후 6:00 저녁식사(17층 파라뷰)
오후 7:00 개강 축하공연
문 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광남일보



바리톤 김동규
학력 밀라노베르디국립음악원
데뷔 1991 오페라 토스카
수상 1997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음악부문
1991년 베르디 국제 성악콩쿠르1위
경력 이탈리아 라스칼라극장 주역가수

바리톤 신홍규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
슈베르트콩쿨 입상
다수 오페라 주역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홍보대사
현) 가천대학교 외래교수

테너 하세훈
한양대학교 성악과 학사 졸업
드레스덴 성악과 석사 졸업
딸리아비니 국제 콩쿨 2등 및 청중상
현) 한양대학교 성악과 외래교수
현)한세대학교 성악과 외래교수